

Teatime 차 한 잔의 대화



대한민국
미술자료의 메카
김달진미술연구소장

김달진



자신의 이름을 붙인 미술연구소와 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한다. 한국미술정보센터관장,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장이라는 중책도 맡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 더욱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성공한 마니아'다. 취미를 직업으로 만든 인물로 교과서에 게재될 정도로 인정받는 '마니아' 김달진 소장을 만나 그가 평생 구축해온 것들에 대해 들어 보았다.

글 박인혁 기자 사진 박성일 기자

무작정 그림 모으던 소년, 최고 전문가 되기까지

김달진 소장은 중학교 시절 신문이나 잡지의 화보그림을 무작정 모으는 취미가 있었다. 명화 한 장이 수록돼 있다는 이유로 두꺼운 여성잡지를 사서 오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저 모으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북공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관람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김달진의 머릿속에 숙명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중섭과 박수근, 혹은 근대 6대 화가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가들은 아예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밤하늘을 볼 때 제일 반짝이는 별에 주목하게 되지만 그 별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조금 덜 밝은 다른 별들이 존재하잖아요. 항상 유명한 작가가 아닌 덜 유명한 작가들에 대해 모으고 싶었어요.”

이때부터 그는 유명 작가가 아닌 무명 작가들에 주목했다.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전시회를 돌아다녔다. 전시 팸플릿과 포스터, 도록 등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훗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미술연구소와 미술자료 박물관을 만들었다. 수집한 자료들이

가장 큰 기반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기행에 가까운 수집벽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초석이였을까?

“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자료를 모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그런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저 모으는 재미가 있었던 거죠.”

정부지원 중단, 규모 줄여 이사가는 사연

취미에서 시작해 연구소도 차리고 박물관을 개관했다. 한국미술정보센터를 만들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공개했다. 해당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로 뽑히며 ‘걸어 다니는 미술연감’, 혹은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실제로 어떤 국공립박물관보다도 김달진 소장이 모은 자료가 더 방대하다. 모아온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연구만 계속하기도 바쁜데 큰일이 닥쳤다. 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끊긴 것이다. 지금까지 마포구 창전동 건물의 3개 층을 빌려서 일을 계속해왔는데, 보증금의 많은 부분을 지원받았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 전용공간 임차지원 사업’이 종료됐다. 돈을 갚기 위해 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야한다. 고민도 많았고 각계각층의 사람도 많이 만나봤다. 하지만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결국 규모를 크게 줄여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지만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문제였다. 그는 40년 넘게 모아온 소장품 2만 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1년 반 동안 여러 방도를 고민해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홀로서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열람 서비스했던 미술단행본, 도록과 학위논문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대구예술발전소, 경기 안산쪽 창작센터 등 몇 군데에서 공간을 내준다고 받았지만 고심 끝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고, 자료를 이용할 이용자의 접근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손수 모아온 자식 같은 자료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은 아프지만, 가치 있게 이용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인터넷 아카이브 구축, 국가 지원 미비 아쉬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고민이 되는 자료에 대한 이야기다. 모아온 미술자료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혼자 소유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다. 끊임없이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아왔던 자료도, 기증 받는 양도 워낙 방대하기에 그 속도가 더디다. 더욱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에서 자료들을 볼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에 비해 아웃풋이 없으니 개인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김달진 소장이 월급을 주는 직원만 해도 10명이 넘는다. 스캔을 하는 것도 모두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그가 발행하는 <서울아트가이드>의 광고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에서 비엔날레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지원이 없다고 냅 놓고 있을 그가 아니다. 나름의 계획을 세워 한발씩 전진 중이다. 소장 단행본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검색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미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첫걸음

근현대 작가들을 중심으로 모든 미술 장르의 자료를 모아온 김달진 소장에게 민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물었다. 김달진 소장은 아카이브의 개념에 대해 먼저 짚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품 외의 모든 것을 아카이브라고 보면 됩니다. 작품 제작을 할 때 쓰였던 스케치, 드로잉, 화구도 포함이 되고요. 도록, 팸플릿, 리플릿은 물론이고 초청장이나 하다못해 주최측과 맺었던 계약서, 영수증 등도 값진 자료가 됩니다.”

그는 현재 구비되어있지 않은 민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작가 스스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가치 있는 아카이브의 특징은 유일성과 원본성입니다. 이름이 적힌 입상통보서나 상장 같은 것들은 유일한 거잖아요. 그걸 고려한다면 본인보다 꼼꼼히 수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작가 스스로 희소가치가 있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놓았을 때, 훗날 전체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얼핏 사소해 보이는 영수증 하나, 작품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적어둔 메모지 한 장도 훗날 연구자에게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것처럼, 민화 작가들도 이를 명심하여 본인만의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은 어떨까? 민화